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경건의 핵심

성경: 이사야 1장 11-20절

Tag: #지성 #경건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 그의 입을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만물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의 이면은 진리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은 지식이 아니다. 지식을 가장한 유혹이요, 미끼에 불과하다.

거짓은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다. 보기는 그럴듯하고 뭔가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결과는 신기루일 뿐이다. 결국은 속절없이 사라진다.

우상숭배가 바로, 이런 거짓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이 말이 진리의 말씀이고, 팩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에 속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감동없고, 딱딱하고, 무의미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의례적인 예배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생동감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참회와 용서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영혼 없는 의례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다. 구약시대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는가? 살진 짐승의 기름을 왜 태우는가? 어린양이 왜 피를 흘리는가?

이 모든 행위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어린양이 대신 흘리신 것을 뜻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이 성찬식 또한 구약의 어린양 제사를 상징하고 있다.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가? 아니다. 우리는 다짐한다.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되새긴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따져 보자. 내가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확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배우라 하셨다. 무엇이 선행인지 배워야 한다. 무엇이 선행인지 헛갈릴 때가 많다. 오늘날 수많은 율법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카페에 와서 빨대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한다. 패트컵은 가져가는데 빨대라도 가져가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기특한 건지, 가특한건지... 도데체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그런식으로 환경이 보호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 것 말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행이 있을 것이다.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정의를 갈망하며 간구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한 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노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악행을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정의인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무엇이 정의인지, 내가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해야 한다.

-내 취향이나, 편견을 위해 선거할 것인지, 정의를 위해서 선거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이 시대에 학대 받고 있는자가 누구인가? 이 시대의 고아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변호해야 하는가?(만약 변호해야 한다면; 알바? 소상공인? 노조원? 삼성이재용? 문재인대통령? 이승만대통령? 김정은? 공무원? 비정규직 청년? 외국인 노동자?)

왜 너희 곁에 고통 당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느냐는 말씀이다.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거짓 위선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신다. 왜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피는 어린양의 피가 아니다. 이 피는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손해를 입는 자들의 피이다.

대장동 개발로 몇몇 소수의 무리가 어마어마한 횡재를 하였다. 그들이 횡재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하며 그 이자를 감당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아무도 자신의 손에 피가 묻었다고 자백하는 자가 없다.

-아무도 회개하는 자가 없다. 정의는 사라졌고, 공간은 비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죄가 선포될 수 있을까? 제사하는 행위의 핵심은 사죄함이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제사고, 회개다.

-왜 그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 지식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큰 돈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이 힘들다고 하셨다.

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이니라.

대장동 사건같이 커다란 거짓말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만, 개인의 사소한 거짓말도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며칠전 외사촌형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는 친한 형이 건축현장에서 사고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되시는 분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뜸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데려가셨다고 생각하라고 했단다. 고인이 건축업자셨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들이 살 집을 짓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건축업자가 필요하셔서 데려 가셨나보다고 했단다.

나는 이런 비슷한 말을 가끔 듣는데, 들을 때마다 황당하다. 글썄 크게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을거 같아서 그런다.

미국에 오랫동안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던 로라라는 분이 있었다.(실존인물) 그녀는 매사에 걱정이 많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를 잃을까 봐 만성적 두려움과 극도의 외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절대로 누구와도 너무 가까워지지 않았다.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자녀가 있었지만 갈등을 겪고 있었다. 직장이 있었지만, 일을 싫어했다. 정신과 의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두려움과 낙심 뒤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의사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감히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그분께 몹시 화가 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께 박해와 벌을 받고 매를 맞은 심정이라고 했다.

삶에 나쁜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시는 거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절대로 희망을 높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느때라도 끼어들어 기쁨을 짓밟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믿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7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엉엉울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로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신학적인 말씀을 하셨다. ‘로라, 하나님이 네 엄마와 함께 있으려고 엄마를 데려가신 거란다’

그녀는 분노에 타오르는 눈을 하면서 의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도 엄마랑 함께 있어야 했다고요!’

어린 로라에게 설교자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말았는가? 본의 아니게 로라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심어졌다. ‘하나님은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가는 존재다.’

거짓말을 믿으면 사랑과 진실의 씨클이 깨진다.

무서운 하나님을 믿은 전전두피질은 편도체에게 정보를 보낸다.

편도체는 대뇌 밑에 존재하는 아몬드만한 크기의 뇌부위로 감정과 공포, 불안에 대한 학습 및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불안과 공포는 다시 전전두피질을 자극한다. 그녀는 더욱 더 삶을 위협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불안은 더욱 심해진다. 거짓말을 제거하지 않는 한 로라의 사고는 치유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은탓에 원한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찬 인생을 살아야한다.

-의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해 보라고 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폭군,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러 피조물에게 고난을 가하는 존재, 우리 쪽에서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존재였다.

-의사는 ‘잘 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의사는 그런 섬뜩한 하나님관을 거부한 그녀를 재차 인정해 주었다. 잔인한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굴종하지 않는 그녀를 칭찬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고가 치유되려면, 하나님이 우리편이시라는 진리를 깨달

아야 한다. 모든 거짓말을 물리치라. 거짓말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와 우리의 뇌를 장악하고 삶을 망가뜨린다.

반면 프렌이라는 소심한 여성은 평생 모태신앙인이었다. 믿음도 좋았고 성실했으나, 만성적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녀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앙적 분위기에서 자랐다. 하나님께 왜냐고 묻는 것은 불신앙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냐고 묻는거라고 배웠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냐고 묻는거야... 아니 그럼, 하나님도 뭔가 숨기실 거라도 있단 말인가?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가 싫어할까 봐 두려우신 건가? ... 아니야, 그분을 믿어야 해. 믿음이 있으면 이따위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거야...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거야...’

그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두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 논리적 생각을 기피한 것이다.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변론을 즐기신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기실게 없으시다. 하나님은 권위적인 어른이 아니시다. 그분은 자기 자녀들과 대화를 즐기시며 우리의 질문을 얼마든지 받기신다.

각종 의식을 만드신 것도,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자신의 전전두피질을 사용하라!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하나님과의 변론을 서슴치 않았던 읍을 보라.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분을 만난다. 하나님과 변론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신뢰의 마음이 열린다. 죄성이 정화되어 순결해진다.

경건의 핵심이란, 사랑과 진리의 예수님을 나의 지성으로 만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모든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물리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거짓, 모든 죄로 말미암은 찌꺼기를 사랑으로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곤경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불안과, 모든 좌절, 우울, 패배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회개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의 다른 말은 거짓이 아닌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성경: 요한1서 4장 16-21절

Tag: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의학박사 티머시 R. 제닝스지음. 윤종석 옮김. 2015년.

(정신과, 신경과 의사. 정신약리학자-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 분야 전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뇌가 변하고 삶이 변했다.

The God shaped Brain. -하나님의 형상인 뇌.

<http://www.seehint.com/word.asp?no=13245>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만물의 원리.

